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발행인 : 이화래, 편집인 : 인동환
 편집 : 대외협력·홍보위원회
 (김태일·김현석·손영환·신찬석·정진철·조철훈·허진희·Hong Sok(Brian) Kim)

스승의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 스승의 날 기념 농생대 명예교수 초청 -



스승의 날 행사 후 기념촬영

5월 19일 대회의실(200동 3016호)에서 우리 대학 명예교수 일행을 초청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명예교수 일행은 먼저 교수회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본부 주관 간담회에 참석하신 뒤 우리 대학 윤대섭 대회의실로 이동하였다. 이날 행사는 교무부학장의 개회사 이후 학장 인사, 명예교수님들의 고견 청취 순으로 이루어졌고, 폐회 후에는 후임 교수가 명예교수에 준비한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우리 대학 명예교수 총 28분이 참석하였고, 참석자 모두가 사제간의 정을 두터이 하고 스승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제22대 학장 후보 소견발표회



좌로부터 정철영 교수, 이희재 교수, 조성인 교수

우리 대학 제22대 학장 후보자들의 소견 발표회가 6월 11일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대학 학장추천위원회는 소견발표회 이후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보자 2인을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은 후보자 중 적격자를 학장으로 임명한다. 제22대 학장의 임기는 7월 2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정철영 교수(농산업교육과), 이희재 교수(식물생산과학부), 조성인 교수

이인원 교수, 개교 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임명

우리 대학 농생명공학부 이인원 교수가 5월 1일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기념사업 추진방향 설정·사업규모 논의·기념사업 선정 및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총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동위원장으로 우리 대학 이인원 교수와 유근배 기획부총장, 부위원장으로 이철수 기획처장이 임명되었다.

이인원 교수는 1974년 우리 대학 농생물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우리 대학에 부임하였다. 그 후 서울대학교 기획부처장,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법인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학교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이인원 교수의 공동위원장 임기는 올해 5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약 1년 반 동안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이끌어가는 중책을 맡게 된다.



이인원 교수

〈주요내용〉

1~3면_농생대 헤드라인
 9면_언론에 비친 농생대

4~5면_농생대 인사이드
 10~11면_기금출연

6~8면_Interview
 12면_농생대 사람들

2015학년도 상반기 교수학사협의회



를 통하여 교원 간에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한편, 선진 산림과학 체험을 통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 대학의 발전 전략을 구성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2015학년도 상반기 교수학사협의회가 6월 12일부터 6월 14일에 걸쳐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교수학사협의회는 선진국의 문화·교육·산림 탐방을 통하여 국제적 감각을 향상시키고, 교원 간 의견을 나눌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다는 목적에서 일본 북해도에서 개최되었다. 첫째 날은 홋카이도 대학을 탐방하며 조경관리 등 사례를 조사하였고, 둘째 날은 오타루 및 노보리베츠를 방문하여 선진농업현장과 자연생태공원을 체험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홋카이도 대학 부속 토미코마이 학술림을 방문, 숲 생태에 관한 첨단 연구스테이션으로서 학술림의 역할을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번 협의회

서울대 명예교수 일행 평창캠퍼스 방문



서울대 명예교수 일행 평창캠퍼스 방문

동력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평창캠퍼스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원로들의 고견을 청취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5월 27일 서울대의 명예교수 일행이 강원도 평창캠퍼스를 방문하였다. 평창캠퍼스는 2014년 6월 준공되어 올해로 설립 1주년을 맞이하였으며, 그린바이오 융합기술 분야의 학·연·산 핵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동북아를 대표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허브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형캠퍼스이다. 이날 명예교수 일행은 캠퍼스 근방 봉평에 위치한 이효석 문학관을 잠깐 둘러본 뒤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최진용 부원장으로부터 평창캠퍼스를 소개받았고, 그 후 연구원과 산학협력단지, 목장을 비롯한 평창캠퍼스 전체를 돌아보는 것으로 행사를 마치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 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과대학 출신의 명예교수님 40분이 참석하였고, 하루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국가발전의 창조적 성장

한인규 전 학장 벤치 헌정식



좌로부터 한인규 명예교수, 이학래 학장

이날 이학래 학장의 감사패 전달에 이어 한인규 명예교수의 답사가 있었고, 이후 벤치 헌정식이 있었다. 학교를 떠난 뒤에도 각자 맡은 분야에서 우리 대학 발전에 계속 힘쓰는 선배 동문들과 함께 훈훈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4월 25일 우리 대학 농식광장(제3식당 앞 광장)에서 한인규 명예교수의 업적을 기념하여 벤치헌정식이 개최되었다. 한인규 명예교수는 1956년 우리 대학 축산학과 졸업 후 1958년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1965년 코넬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같은 해에 우리 대학 교수로 부임하였다. 이후 2000년에 퇴임하기까지 한국축산학회, 아시아태평양양축산학회, 세계축산학회 등 여러 학회장을 역임하였고, 1989년에는 우리 대학 제11대학장, 1992년에는 NICEM 소장을 역임하는 등 연구는 물론 학교 행정에서도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또 한인규 명예교수는 퇴임 후에도 목운문화재단 이사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서울대명예교수협의회장, 서울대상록문화재단 이사장을 맡는 등 모교 및 축산학계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여 후학의 모범이 되고 있다.

‘수원에서 모내기를 한다?’, 필모식 현장에 가보다!

1학기도 끝나가는 6월, 관악캠퍼스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준비하며 한 학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분주한 시간을 보낸다. 원래 농생대가 있었던 수원농장에서도 모두들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모’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벼의 모종을 심는 ‘모내기 작업’이다. 학생들이 한 학기를 마치고 ‘종강총회’를 갖듯이, 초봄부터 계속된 모내기 작업을 마친 수원목장에서는 연례적으로 ‘필모식’이 열린다. 여기서 ‘필(筆)이란 ‘마치다’라는 의미로, ‘필모식’은 말 그대로 ‘모내기를 마치기를 축하하는 행사’라는 뜻이다. 시행된 지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을 만큼 유서 깊은 행사임에도 필모식은 농생대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필모식과 직접 관련된 식물생산과학부를 비롯한 몇몇 학부 관계자를 제외하면, 많은 구성원들이 필모식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우리 농생대 구성원들에게 필모식의 역사부터 행사 진행절차까지 소개하고자 한다.

100년 전통의 필모식, 오랜 전통만큼 중요성도 커

필모식은 수원농장에 있는 약 39,669㎡의 논에 모심기 작업을 완료한 기념으로 열리는 연례 행사이다. 농장의 논에서는 품종·재배법 등과 관련된 실험에 필요한 벼가 재배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모내기 작업은 초봄부터 시작된다. 필모식 행사에서 학생들이 모를 심는 논은 2개월 간의 모내기 후에 남아있는 부분으로, 그 면적은 약 661㎡ 정도이다. 비록 실제 모내기하는 면적이 넓지는 않지만 필모식의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 수원농장 김봉호 팀장은 “필모식은 농경문화 속의 큰 축제와 같다”며 “농업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행사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봉호 팀장은 “필모식을 통해 점차 소홀해지는 현장 교육의 가치를 되살릴 수 있다”며 필모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모내기가 진행되는 2시간 동안 많은 학생들은 직접 줄을 정렬하거나 모를 심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현재 수원농장장을 맡고 있는 식물생산과학부 원예학 전공 이희재 교수는 “현재 도시에서 나고 자란 학생이 많은 만큼 직접 벼를 심어보는 것은 가치있는 활동”이라고 말했다.

필모식이 학교에서 처음 이루어진 것은 무려 10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래전 일이다. 김봉호 팀장은 “필모식은 1906년 서울대 농대의 시초인 농림학교가 개교하면서 시작되었다”며 긴 역사를 설명했다. 농경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의 전통 행사로서 맥을 지켜나가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이어져 온 만큼 필모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희재 교수는 “수원캠퍼스 시절에는 농경계 전공과 같이 벼를 이용한 실험과 관련이 없는 학생들도 시간만 되면 참여했다”고 말한다. 이와 달리 지금의 필모식은 ‘작물생명과학 실습 및 실습’이나 ‘채소학 및 실습’ 등 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 위주로 진행된다. 규모와 참여 학생의 구성은 달라졌지만 이희재 교수는 “여전히 필모식은 학생과 교수가 교류하는 장이라는 점에서는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모내기부터 뒷풀이까지, 필모식의 모든 것



필모식 전반부

을 설명한다”고 덧붙였다. 200평 남짓의 작은 논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은

실제 모내기에 필요한 모든 역할을 각자 분담하여 직접 경험한다. 이희재 교수는 “줄을 잡는 사람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깃발을 드는 학생까지 모든 학생이 다양한 역할을 분담한다”고 필모식의 전반부를 설명했다.

역할을 배정받은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모를 심게 된다. 필모식에서 행해지는 모내기는 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필모식에 사용하기 위한 논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물론 농기계를 이용해서 모내기를 한다. 필모식에서 굳이 손으로 모내기를 하는 것은, 필모식의 취지인 노동의 즐거움과 협동의 가치 등을 학생들이 직접 느껴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희재 교수는 “과거에는 농기계가 발달하지 않은 관계로 모든 모내기를 손으로 했다”고 말하며 “농기계가 발달한 현재는 기계 이양을 하지만 필모식의 취지를 고려해 손 이양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순서는 필모식을 끝마치며 이루어지는 ‘뒷풀이’다. 필모식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은 뒷풀이에서 오랜만에 같은 전공 학생과 즐거운 시간을 갖고 교수님과 가까워진다. 이 덕분에 필모식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교수님과 선·후배와 가까워졌다는 점에서 필모식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희재 교수 역시 “필모식 뒷풀이를 통해 학생들에 대해 모르는 사실을 알아가기도 한다”며 뒷풀이를 통해 얻는 즐거움을 얘기했다.

내가 심은 벼, 학교 발전에 쓰인다

필모식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은 재배된 벼가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해 한다. 필모식에서 심어진 벼는 수확 뒤 우선 농협에 판매되고, 그 수익은 학교로 돌아간다. 이희재 교수는 “필모식이 열린 부분을 비롯해 농장의 논에서 생산된 벼는 양이 크게 많지 않아 다른 작물과 함께 농협에 판매된다”며 “이는 전액 법인회계로 세입조치 되어 학교가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신선함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행사였다”

현재 필모식에는 ‘채소학 및 실습’ 등 4개의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참여한다. 필모식에 참가하는 학생은 80명 전후로 꽤 많은 인원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전에 농사를 직접 해본 학생들의 수는 굉장히 적다. 이희재 교수는 “요즘엔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 중 상당수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다”며 “벼농사의 대부분이 기계화되어서 손 이양을 해본 학생은 더더욱 적다”고 덧붙였다. 처음 해 본 모내기에 ‘고되다’라는 반응을 보일 것이라 예상과 달리, 필모식을 통해 처음 모내기를 해본 학생들은 주로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작물생명과학부 12학번 진승우 씨는 “말로만 듣던 논에 직접 들어가 보니 기분이 색달랐다”며 “농생대 학생으로 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긴 역사를 가진 필모식에 참여한다는 생각에 뿌듯했다는 학생도 있었다. 원예생명과학과 13학번 박진서 씨는 “전통이 있는 행사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꼈다”고 참여소감을 밝혔다.

기말고사를 앞둔 학기 말이지만 필모식에 참여한 학생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얼굴은 밝았다. 필모식의 취지처럼 행사가 끝난 뒤 학생들은 노동의 즐거움과 협동의 가치를 배웠기 때문이다.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필모식은 매년 많은 학생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주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CALS 농생명산업 특강 실시

4월 13일 203동 101호에서 “제지산업 쇠퇴산업인가, 지속 발전가능 사업인가?”라는 주제로, 한국 제지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이복진 동문의 농생명산업 특강강연이 개최되었다. 이날 강연은 제지산업의 동향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약 60명이 참석하였다. 이복진 동문은 임산가공학과 76학번으로 제지공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84년 한국제지 기술연구소에 입사하여 연구개발 및 생산 현장에서 16년을 근무하였다. 이후 특수지 사업 관련 경험을 쌓은 뒤, 한국제지 부대표를 거쳐 2014년에는 대표이사로 임명된 바 있다.



2015학년도 1학기 성적우수장학증서 수여식

4월 27일 대회의실에서 2015학년도 1학기 성적우수장학증서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57명의 학생이 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증서를 수여받았고, 선발된 성적우수장학생에게는 등록금이 전액 면제된다. 성적우수장학생명단은 다음과 같다.

산업인력개발학과 서예민, 조용훈, 김민지 / 작물생명과학전공 이민주, 박준형 / 원예생명과학전공 박현우, 이유진, 송정환 / 산림환경과학전공 오제창, 김다영, 강민구, 최인진 / 환경재료과학전공 조성환, 김민지, 임지원, 백종호 / 응용생명화학전공 안우열, 이유정, 김지현, 유선아 / 응용생물학전공 권구담, 최유진, 주소연, 김나희 / 식품생명공학전공 이찬영, 윤지영, 고두현, 현용성 / 동물생명과학전공 배소연, 김중찬, 황의득, 위현수 /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강다은, 정우진, 양승보, 강신찬 / 바이오소재공학전공 권재원, 엄윤식, 서연주, 김민지 / 조경과학전공 신영대, 이민수, 유지민, 김시경, 송윤정 / 지역시스템공학전공 정하중, 이종환, 최승필, 김범준 / 농경제학전공 유동호, 반경훈 / 지역정보전공 고기현, 이현, 강희운 / 농업·자원경제학전공 이지현, 정다울, 이예지



2015학년도 1학기 CALS AE 장학증서 및 신규회원 회원증 수여식

4월 27일 대회의실에서 2015학년도 1학기 CALSAE 장학증서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5명의 학생이 'CALS(Academic Excellence) 장학생' 장학증서를 받았고, 8명의 학생이 CALSAE 신규회원증을 수여받았다. CALSAE 장학생 프로그램은 우수한 재학생으로 하여금 미래 농산업분야의 학문 후속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자발적 학생모임으로, 회원은 학부 졸업 후 농생대 대학원 진학시 학업장려금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CALSAE 장학생 명단
농경제학전공 전용찬, 작물생명과학전공 김석환, 원예과학전공 임주영, 응용생물학전공 최고봉, 바이오소재공학전공 전주현

※ CALSAE 신규회원 명단
원예생명과학전공 정효봉, 박진서, 김세준 / 농업·자원경제학전공 이예지, 한지연, 조영훈, 우정민 / 응용생물화학부 문소정



벨리즈 에너지부 장관 일행 방문 간담회

지난 4월 30일 대회의실에서 벨리즈의 에너지부 장관 일행을 맞이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벨리즈는 중미 유카탄 반도의 남쪽에 자리잡은 인구 33만의 나라로, 카리브 해에 접하여 '카리브 해의 보석'으로 불릴 만큼 아름다운 바다와 산호초의 풍광으로 유명하다. 벨리즈는 2015년을 과학기술 발전의 해로 삼아,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그러한 행보의 일환으로 이번 사절단이 파견되었다. 이날 행사는 사절단의 공식 방문 일정 마지막 날에 개최되었으며, 우리 대학 이학대 학장과 벨리즈 에너지부 Joy Grant 장관의 인사로 시작되었고, 이어 우리 대학 소개, 연구실 및 부속기관 투어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약 3시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양국의 우의를 다지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경험과 선진 농업기술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남부학술림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우리 대학 남부학술림은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지역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숲체험활동 및 산림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남부학술림 숲체험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프로그램은 3월부터 11월에 걸쳐 남부학술림 추산시험장에서 진행되며, 지역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아동과 일반 청소년 등 1,458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본 프로그램은 높은 인기로 3월에 이미 총 26회 신청접수가 마감되었고, 6월 22일 현재 10회에 걸쳐 총 507명에게 숲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재원은 산림청 복권기금(녹색자금)으로부터 지원된다.



실험목장, 토종닭 종복원센터 지원기관 지정

국립축산과학원은 올해 7월부터 우리 대학 실험목장을 토종닭 종복원센터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실험목장은 대학에서 수행하는 교육 및 연구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조류독감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5품종 12계통의 토종닭 복원사업을 2014년부터 총 3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지원기관 지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이 이러한 실험목장의 공로를 인정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실험목장은 앞으로 토종닭 공급은 물론 나아가 국가의 고유 유전자원의 관리와 유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5학년도 1학기 광양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

5월 15일 소회의실에서 2015학년도 1학기 광양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었다. 우리 대학은 2010년 백운산권의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의 경제·환경적 가치의 중요성 재인식을 위하여 광양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광양인재장학금은 이 양해각서를 근거로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매년 우리 대학에 입학하는 광양지역 고등학교 출신 학생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번 장학금 수상자는 서여정(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15, 광양제철고 졸업) 학생으로, 재학 중 일정 평점 이상 취득을 조건으로 졸업까지 장학금을 받게 된다.



동창회 임원 및 교육연구재단 이사 과천 한국마사회 견학

우리 대학은 5월 17일 우리 대학 동창회 임원 및 교육연구재단 이사 약 40분을 모시고 과천 마사회 견학 행사를 가졌다. 우리 대학을 떠난 후에도 모교에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시어, 우리 대학이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신 동문들에 대한 작은 보답으로서 이번 행사를 가지게 되었다. 이날 행사는 교육연구재단 이사 겸 한국마사회 부회장을 역임 중이신 이상영 부회장(잠사학과 65)의 초청으로 마련되었고, 마사회 소개에 이어 승마체험, 동물병원 견학, 경마 관람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우리 대학과도 관련이 깊은 한국마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언제나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동문들이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여 정을 나누는 훈훈한 시간이 되었다.



농생대 봄축제 대동제

우리 대학 학생회는 5월 28일 농식 광장(제3식당 앞 광장)에서 농생대 봄축제 '대동제'를 개최하였다. 대동제 중에는 물총과 물풍선을 이용한 행사 <여름이 왔나 봄>과 참석자에게 솜사탕을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 <나뭇가지에 실처럼 걸려 봄>을 중심으로 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 중에는 각 학과 회장단과 함께하는 셀프 장터가 오픈되어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이후 농생대 밴드 <샌드페블즈>와 노래패 <매김소리>의 공연이 있었고, 공연 후 경품 추첨을 끝으로 이번 대동제는 막을 내렸다. 하루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학업에 바쁜 동기들간의 우의를 새롭게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제15기 글로벌 챌린저 임명장 수여식

제15기 CALS글로벌 챌린저 합격팀 임명장 수여식이 6월 1일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글로벌챌린저 프로그램은 농산업 개방화 시대에 세계의 농산업관련기관 및 현장을 직접 탐방하여 글로벌 마인드를 배양함으로써 우리 재학생들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개최되고 있다. 5월 14일 열린 프레젠테이션에는 총 10개 팀 23명이 지원하여 치열한 경합을 펼쳤으며, 심사 결과 4개 팀 9명이 글로벌 챌린저로 임명되었다. 글로벌 챌린저는 각국을 탐방하여 탐방수기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합격 팀은 다음과 같다.

Ninano팀(산림과학부 김다빈, 김다혜):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Invitation to SM팀(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김주현, 김정은): 독일

S.E.S(Social Economy Supporters/Sisters)팀(농경제사회학부 이은지, 이아름): 영국

TTT(Trash To Treasure)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정다현, 신채영, 이본): 영국, 프랑스, 독일



제2회 CALS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제2회 CALS 창업경진대회가 4월 10일부터 5월 29일에 걸쳐 전개되었다. CALS 창업경진대회는 새로운 기술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들의 벤처 창업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제고시켜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개최된다. 최초 참가신청자 10개 팀을 대상으로 4월 10일 우리 대학 김완배 교수 등의 창업교육이 있었고, 5월 11일~5월 22일에 거쳐 1차 서류심사가 있었다. 그리고 5월 29일 1차서류심사를 통과한 8개팀이 2차 프레젠테이션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시상식은 6월 8일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시상식에서 '굵은 급수구가 달린 급수기'를 고안한 김종석 학생(산림과학부)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상금 300만원이 수여되었다. 그 외 Honest AVOCADO팀(농경제사회학부 박진세,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장지성, 경영대 경영학과 김정현, 사회과학대 인류학과 김진영)이 우수상을, LoveFarm팀(농생명공학부 이선주)과 유호찬 학생(산림과학부)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농대 축구부 휘모리! 그 역사를 파헤치다.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40~50명에 이르는 농생대 축구부 휘모리는 2014년 총장배 8강, 종합체육대회 11강, 2015년 총장배 4위를 차지하는 등 단과대 동아리로서 뛰어난 실력과 규모를 갖추고 있다. 이처럼 탄탄한 실력 외에 더욱 그들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지금의 휘모리가 탄생하기까지의 흥미로운 역사이다. 농생대 축구부로서 휘모리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보고자 한다.

농대 축구부 '레드 라이온즈'의 명맥을 잇다.

휘모리 이전에 농생대에는 농대 축구부 레드라이온즈가 있었다. 농대 축구부 '레드 라이온즈'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74~77학번 부원들의 노력으로 70년대 중반에 중흥기를 맞이한 레드 라이온즈는 70년대 후반 시작된 총장배 체육대회에서 그 기량을 선보이며 점차 이름을 떨쳐나갔다. 그 출중한 실력이 알려지자, 레드 라이온즈는 아주대, 수원대, 경기대, 강남사화복지대 등 경기도 내의 다른 대학교 축제에 초청되어 교류전도 진행했다. 교류전 경기 후에는 "매너 좋고, 공 잘차는 서울대 축구부"와 즉석 미팅을 하려는 여학생들도 많았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홈커밍데이에 참석했던 한 동문은 "경기에 지는 날은 수원 캠퍼스까지 구보로 돌아왔는데 특히 골키퍼는 공 그물을 들고 오느라고 고생이 심했다"며 그 시절을 즐겁게 회상했다. 또한 지역시스템공학부의 강문성 교수는 학부 3, 4학년 때 농생대 축구부의 주장을 맡았던 만큼 농생대 축구부에 대한 애착이 크다. 강 교수는 "대학원생 시절 총장배 대회 우승을 목표로 수업을 다 포기해가며 매일 아침 새벽 연습을 했다. 하지만 연이은 경기와 빗물에 공이 미끄러지면서 아깝게 4강에서 떨어지고 녹두 거리에서 밤새 술을 마시며 부원들끼리 껴안고 울었던 기억이 난다."며 잊지 못할 시절을 회상했다.

농생대 축구부의 위기와 휘모리의 탄생

하지만 농생대가 수원캠퍼스에서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농대 축구부는 위기를 맞았다. 신입생들이 수원 캠퍼스로 내려오지 않아, 신입 부원을 충원하기가 어려웠던 탓이다. 하지만 그 사이 관악 캠퍼스에서는 각 과별로 여러 축구 동아리가 생겨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다. 농생대 축구부가 농생대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지녔다면 각 과별 축구 동아리는 비교적 소규모로 구성되어 각 과의 구성원간의 친목과 단합을 상징하였는데, 이 당시 탄생한 여러 과 축구 동아리 중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여준 동아리가 바로 농경제사회학부에서 탄생한 휘모리였다.

휘모리, 레드라이온즈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농생대 축구부로 '변화' 하다.

관악에서 태어난 많은 축구 동아리 중 휘모리는 가장 활성화되고 선후배들 사이의 단합이 잘 이루어지는 동아리였다. 이를 통해 휘모리는 농대 축구부 레드 라이온즈 재건의 구심점이 되었다. 먼저 당시 농대 축구부 동문

들 사이에서 다시 교류를 시작하고 연결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레드 라이온즈의 동문 중 한 명이 휘모리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고, 휘모리도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현재 휘모리의 지도교수인 안동환 교수는 '당시 휘모리 단원들은 과 축구 동아리로 남아 그 나름의 의미를 지키는 것과 농생대 축구부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 사이에서 어느 길을 택할지 진지하게 고민했었다'고 회상했다. 결국 2006년에 처음으로 레드 라이온즈 OB들과 함께 홈커밍데이를 열기 시작하면서 레드라이온즈와 휘모리의 연결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 자연스럽게 '휘모리'는 레드 라이온즈를 계승하게 되었지만 아직 휘모리는 과 동아리였다. 레드 라이온즈와 같은 농대 축구부로 거듭나려면 동아리 구성원을 농생대 전체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따라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농대 내에 흩어져 있던 축구동아리들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결과, 2014년 현재에는 공식적으로 농대 축구부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과의 구성원들로 팀을 꾸려 S리그에 참가하고 있다.

축구를 통해 맺어지는 끈끈한 인연

농대 축구부 휘모리의 가장 큰 장점은 동아리를 통해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동료와 선후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휘모리라는 동아리의 특성상 아침 연습이나, 정규 훈련이나 리그 경기 같은 공식 일정 이외에도 산발적인 연습이나 모임 등을 통해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동아리원간에 서로 가까워지게 된다. 휘모리를 거쳐간 선배들과의 교류도 활발한데, 현재 휘모리 주장인 지역시스템공학부 12학번 이지후 학생은 "안동환 지도교수님을 비롯한 농생대 여러 교수님들이 동아리 선배님이셔서 따로 만남의 시간도 있고, 2000년대에 졸업한 선배님들을 직접 찾아가서 식사를 함께하기도 한다. 또 최근에는 휘모리 출신 졸업생들이 모여서 포프자라는 축구팀을 만들어 일 년에 1~2회 정도 친선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또한 운동 동아리임에도 불구하고 위계질서를 강조하기보다는 선후배 사이 자유로운 소통과 교류를 즐기며 운동하는 분위기 덕분에 멤버들 간의 유대관계가 더욱 강하다. 휘모리 주장은 "통합이 거의 이루어져 지금은 여러 과가 모여 함께 축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이뤄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생대 내 다른 축구 동아리와 함께 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학기 때 휘모리의 주관 하에 농대 학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다른 과 동아리와 축구로 하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긴 역사를 가진 농대 축구부 휘모리의 변화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휘모리는 앞으로도 농생대 축구부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굳혀, 더욱 다양한 사람들과 축구를 통해 함께 화합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농생대 축구부 휘모리의 포부에서, 머지않아 총장배 우승까지 거머쥔 그들의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농생대 학생기자단 제3기 김대욱, 제3기 오유진, 제5기 방지원



경기전 목례



연습 장면



휘모리 이지후 주장(지역시스템공학부 12)

두나무 CSO, 퓨처위즈 전무이사 김형년 동문을 방문하다.



김형년(농경제 95)

농경제 출신 IT 사업가

서울 출신의 김형년(농경제 95) 동문은 대학시절을 떠올리며 “사회에 진출한 뒤에는 비록 서울대 출신이지만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학벌보다는 실력으로 승부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가 입대를 했을 때 IMF 사태가 터졌다. 당시 PC방이 들어서고

핸드폰 보급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평소 컴퓨터에 관심이 많고 군대에서 전산병 출신이었던 김 동문은 작은 아버지의 PC방 사업을 도우며 사업의 재미를 맛보았고, 핸드폰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을 직접 보며 시대의 변화를 느낀다. 이는 이후 그가 IT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 이후 김 동문은 ‘학교는 졸업만 하자’는 생각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한다. 핸드폰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었는데 “나만의 아이디어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김 동문의 첫 사업이었다.

김 동문은 휴대폰 결제 기업 ‘다날’에서 벤처 인생을 걷기 시작했다. 집안의 반대도 있었지만 그는 “말이 통하는 친구들과 회사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이 더 재미있었고, 이 일을 통해서 얻는 것이 더 많았다”고 회상했다. 이때부터 그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재미있게 일하고 싶어하는 그의 가치에 따라 회사를 꾸려간다. 아이템을 발굴하는 일과 엔지니어를 찾는 과정에서 김 동문의 이러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김 동문은 서울대 전산과 친구들을 모으고 군 시절 전산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친구도 불러, 자유롭게 재미있게 다닐 수 있는 회사를 만든다.

안주하지 않는 도전 정신

핸드폰이 보급된 초창기에는 ARS로 노래를 듣고 마음에 드는 노래를 고르면 전화로 과금되는 방식으로 벨소리를 구매했는데, 전화로는 과금이 되지만 인터넷으로는 구매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요금 몇 백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계좌이체하기도 애매했기 때문이다. 김 동문은 ‘인터넷으로도 소액결제가 되도록 하자’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실현시켜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 결과 회사의 규모는 이전에 비해 매우 커졌다. 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되었고 거래량도 늘었다. 직원 6명으로 시작한 회사가 ‘너무’ 빠르게 커지며 ‘창조와 도전’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되자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은 김 동문은 회사를 그만둔다. 그의 나이 26세 때였다.

막상 회사를 나온 김 동문에게 특별한 아이템은 없었지만 곁에는 그를 따라 함께 나온 친구들이 있었다. 아이템이 없더라도, 당장 먹고살 일거리가 없더라도 김 동문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친구들이었다. 이때 장한 다날의 지분을 매각했는데 그는 “창업에서부터 회사를 키우고 회사를 매각하기까지, 창업을 시작부터 끝까지 한 사이클을 경험하며 많이 배웠다”고 회고했다. 이후 김 동문은 그간의 창업 경험과 농경제학 전공을 살려서 증권컨텐츠와 IT산업을 융합한 증권컨텐츠유통 솔루션 제작 회사를 만든다. 그는 쌍방향으로 투자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시도했고, 현재 카카오톡 친구 관계를 활용한 증권 거래 서비스인 ‘증권플러스’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증권플러스’ 앱은 금융섹션 플레이스토어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으며, 하루에도 10만 명이상이 이용하는 등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후배들에게 한 마디

김형년 동문은 언젠가 본인이 공부했던 농업 관련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한다. 그는 “웃이나 집이 없어도 폭동은 나지 않지만 식량이 이틀만 없으면 당장 폭동이 난다.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은 바로 농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농업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하면서, 농업-IT 융합 아이템의 사례로 ‘드론’을 이야기했다. 그는 드론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즉 병충해 감시, 경작지 관리, 산불 감시 등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농업에 드론이 사용되는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소프트웨어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 예측했다.

그는 “만약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업을 하라면 분명히 농업에서 아이템을 얻을 것 같다”라고 하며, 기존 IT분야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지만 농업-IT 융합 분야는 미개척 상태라는 점에서 도전해 볼 것을 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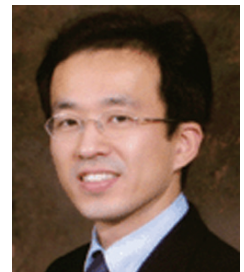
농경제 출신의 IT 사업가로서 그는 후배들에게 “젊었을 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 대해 생각해 보고 도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과 출신의 사람도 공부를 하면 IT 분야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으니 도전하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동문은 학창시절에 네트워크 개론 등 컴퓨터 관련 수업을 들었다. 또 “공부를 하면서 내 아이디어를 실현해줄 수 있는 인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창업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할 때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농생대 학생기자단 제4기 이형민, 제5기 이상욱

CALS Newsletter의 교수 릴레이 도서 추천

열세 번째 주인공은 바이오모듈레이션 소속 서정용 교수!

서정용 교수는 1999년 KAIST 화학과 (물리생화학 전공)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2000년 LG생명과학연구원, 2004년 미국 국립보건원(NIH)을 거쳐 2009년 서울대학교로 부임했다. 그 후 6년간 농생명공학부 바이오모듈레이션 전공에서 전공 분야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 서정용 교수가 전공한 '물리생화학'은 화학을 기반으로 생물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로서 교수는 이 분야의 지식을 바탕으로 단백질 구조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세균이 당을 흡수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신호전달단백질' 과 식물과 사람의 '전사단백질'을 연구 중이다.



서정용 교수
(물리생화학 전공)

교수님이 현재 전공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정용 교수는 “나의 대학시절에는 학문간 융합이라는 개념과 물리생화학이라는 분야가 매우 생소하였고,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개념이 막 시작되는 단계였다”고 회상하였다. 물리생화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드물었다는 것이 도리어 서 교수가 이 분야를 전공으로 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 교수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연구들이 당시에는 매우 어려웠으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고 현재의 전공을 선택한 동기를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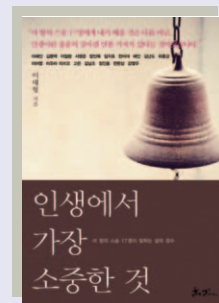
교수님의 대학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서정용 교수는 대학생활을 “즐거움과 추억이 가득한 시간”이었다고 말한다. 서 교수는 “대학생 시절에 마냥 공부만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즐거웠던 동아리활동과 각별한 친구들과의 추억을 언급했다. 특히 음악을 좋아하여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기도 했고 테니스 동아리에서 활동하기도 했던 경험을 풀어놓았다. 방황하던 시기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고민을 털어놓았던 기억에 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서 교수는 “예전엔 지금처럼 너무 치이며 살지는 않았다”며 “취업, 미래의 불투명성에 대한 걱정은 했지만 지금처럼 심하게 몰두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에게 한마디

서정용 교수는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만의 소중한 시간을 갖는 것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심이 가는 동아리에서 활동한다면, 친구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자신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 있는데, 단지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부와는 별개로 다양한 사람을 만나 견문을 넓혀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농업생명과학대학에는 다른 단과대와와는 다른 차별화된 장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농생대에는 문과와 이과, 다양한 학부들이 모여 있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며 “농대의 각 학부 학생들이 자신의 학부 뿐 아니라 타 학부의 사람들과도 많은 교류를 해야 한다”고 권장하였다.

도서 추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저자 : 이태형)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저자가 우리 시대의 ‘멘토’라고 할 만한 사회각계 각층의 열일곱 명을 만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행한 인터뷰 내용을 엮어놓은 책이다. 서정용 교수는 “이 책은 인생에 대

하여 한 사람의 관점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읽을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용 구성상 통째로 읽을 필요 없이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읽을 수 있다는 점도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로 꼽았다.

“삶은 당신 친구들과의 경쟁이 아닌, 나 자신과 벌이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친구들을 무조건 앞지르려고만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나만의 아름다운 색깔과 열정을 찾으세요 - 헤밍스님”

서정용 교수는 특히 본인이 가장 인상깊게 읽은 헤밍스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즘 대학생이 처한 상황에 대한 공감과 그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요즘 신문지상에 회자되는 ‘3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에 대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서 교수는 “인생이라는 배는 목적지까지 빨리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만큼, 인생을 길게 보았으면 한다”며 “인생을 향해하는 도중에 주변도 이리 저리 둘러보고 꽃과 나무를 즐기며 가야 하는데 이런 즐거움을 알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서정용 교수는 학생들이 스스로를 둘러볼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우리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은 대학 입시 전후로 다른 이들과 심한 경쟁을 경험한다”며 “대학교에서만 큰 눈앞의 경쟁 너머로 멀리 시야를 확대해 보고, 나 자신과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다음 호의 도서 추천 주인공은?>

서정용 교수에게 다음 호의 주인공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가 추천한 주인공은 산림과학부 ‘김현석’ 교수. 김현석 교수의 추천도서는 다음 호에 공개!

〈2015.04.02. 시사오늘〉

한국 경제 재도약, 교육 혁신에 있다

“학벌 중심에서 능력 중심으로 나아가야”



나승일 교수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나타난 경이적이고 급속한 경제발전은 인간자원에 기초를 둔 것이며 교육은 지적이며 근면한 국민을 양산하는데 이바지했다.”

— UNESCO 보고서, ‘Republic of Korea: Educational Services in a Rapidly Growing Economy’

교육은 국가 발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써, 인적자본 증대와 기술발전 등을 이끌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우리나라가 이뤄낸 지난 60여 년간 이룩한 급속한 경제발전의 배경에 ‘높은 교육열과 교육기회의 확대’가 깔려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 교육부 차관을 지낸 나승일 서울대 교수는 IMF 이후 줄곧 경기 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교육’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3월 31일 국민대 북악정치포럼 연단에 선 나 교수는 학력과 학벌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나아가야 저성장의 늪에서 헤쳐 나올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교육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을 많이 아느냐? NO, ‘무엇을 할 수 있느냐?’ YES”

“경제 재도약과 선진국 반열 진입을 위해서는 결국 인재가 필요하다. 인재란 교육을 통해 육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육 현주소는 입시 위주, 학력 위주의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 이제껏 하였던 대로 하면 도약은 포기해야 한다. 학벌과 스펙 중심의 사회, 전부 무용한 것은 아니지만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꼭 머리가 좋고, 교과 성적이 좋아야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재인지 생각해볼라. 현행 교육 시스템의 지향점과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학벌 중심의 사회에서 능력 중심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 진전에 우리나라의 희망이 있다.”

“‘무엇을 많이 아느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의 방향으로 교육 내용을 혁신해야 한다. 요즘 젊은이들 학벌 찾으려, 스펙 쌓으려 너무 힘들게 청춘을 보내고 있다. 좋은 일자리 구하겠다고 취업 재수, 삼수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가만 보면 훌륭한 스펙은 갖췄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앞으로 할 일과는 무관한 방향으로 공부를 하더라.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다. 앞

으로 교육 혁신을 거쳐 취업 시장에서도 직무능력 중심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이어 나승일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역량체계(NQF, 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사업이 우리 사회가 능력 중심 사회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근혜 정부는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 혁신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혁신 사업으로 NCS와 NQF를 들 수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직무를 면밀히 분석하면 그 분야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 작업을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게 바로 NCS다. 우리 교육 시스템을 보면, 상급학교로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더 없이 좋은 교육이나, 구인·구직 시장에서는 선호하는 형태가 아니다. NCS는 우리 학교 교육을 현장 중심의 교육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NQF는 쉽게 말하면 학력, 자격증 및 기타 증서, 그리고 경력 등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일종의 기준표를 의미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학력 사회로 치달았던 이유 중 하나로 이 같은 상호비교를 위한 객관적인 잣대가 존재하지 않은 점을 꼽는다. 이미 NQF를 시행하고 있는 스코틀랜드는 꼭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지 않더라도 특정 자격증을 얻거나 일정 기간 경력이 있다면 학위를 인정해주고 있다. 이게 바로 NQF의 장점이다.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선수도 앞으로 지도자의 길을 밟으려면 대학을 가야하고 학위를 받아야 하는 게 우리 사회 현실이다. 이런 부분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나는 박근혜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강의를 마친 후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나 교수에게 물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왔다 갔다 한다. 최소한 교육만큼은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가야 나라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고 보는데, 교육부 차관을 지낸 나 교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 교수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정부는 마치 대한민국 미래를 향해 항해하는 배와 같다. 그 방향은 분명히 일관되게 가야 하는 게 맞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과제에 있어서는 미세한 조정이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국민들은 입시 정책이 매번마다 자주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쉬운 수는 기초로 점진적으로 바뀌는 것일 뿐이다. 자주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게 아니겠느냐.”

시사오늘 박근홍 기자 서지연 기자

〈2015.04.06. 아주경제〉

경기도-서울대 구 농과대(수원시 소재) 기숙사 활용 합의..문화 공간도 조성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위치한 옛 서울농대 기숙사인 상록사를 ‘따복(따뜻한 복지)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남경필 지사와 성남인 서울대총장은 6일 서울대 총장 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서울대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상록사는 지난 1984년 지어진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인 1실 형태의 기숙사로, 도와 서울대는 공동협의를 거쳐 구성하고 상록사를 도내

대학생들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이를 리모델링하고, 아울러 구 서울농대 캠퍼스에 문화·예술 공간과 역사공원 달 숲길 등을 조성해 도민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 기관은 ▲제2판교 테크노밸리 내 오픈랩연구소운영과 기업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흥 배곧신도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및 국제기구 유치 위한 공동 노력 ▲서울대 시흥캠퍼스 연구사업화 단지 조성 등을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해외기업 유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현재 추진 중인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오픈랩 연구소 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업에게 장비와 공간

을 개방하기로 했다. 기술개발지원과 공동연구가 가능한 오픈랩연구소는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 추진하는 산·학·연 협력형태의 융합형 창조 지식 기반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시흥 배곧 신도시를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해 지역교육을 활성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는 서울대와 함께 시흥 배곧 신도시에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사업 추진, 외국어 전용타운 조성, 지역사회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 체험 마을 조성, 외국인의 의료 서비스를 위한 병원 설립 등 다양한 국제적 교육 시설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 서울대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고 해외기업을 유치하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기숙사를 얻지 못해 불편을 겪는 도내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며 “경기도와 서울대가 공동 발전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이 접목된 첨단 미래도시로 만들어질 제2판교가 우수한 인재와 연구기반을 갖춘 서울대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첨단 클러스터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농생대 교육연구재단 기금출연 소식

기금 출연해 주신 분들

다음은 지난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 대학에 기부해 주신 분들입니다.

기금출연 (2015. 04. 01 ~ 2015. 05. 31.)		누적금액 : 78,000,000원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재단법인 목운재단	74,000,000	주비이오센	2,000,000
		주제노레버코리아	1,000,000
		주푸름바이오 박현준(박01 원예학)	1,000,000

[농생대 발전기금 출연안내]

농생대 교육연구재단 전화 : 02)880-4510
농생대 홈페이지 : <http://cals.snu.ac.kr>

기금출연(2000. 01. 01 ~ 2015. 03. 31)					누적금액 : 6,054,643,405원	
(유)PPG코리아	고종열 (87)축산학(박사)	김영도 (68)축산학	동희특수산업(주)	서진호 식품생명공학 교수		
(재)목운문화재단	고희중 (76)농학	김영배 (85)축산학	류관희 (63)농공학	서학수 (65)농학		
(재)유연화학회	고희중, 김성남, 안희성, 노희명 기부보험 만기액	김영복 (72)농공학	류덕희 (주경동제약 대표이사)	성호경 학부모		
(주)녹색식물연구소 (78)원예	광주MBC	김영성 (58)농학	류순호 (55)농화학	손정익 (75)농공학		
(주)프로셀코리아	구자환 (81)농학	김영성 (59)농경제학	무영 (55)농공학	식물분자유전공학센터		
(주)내츄로바이오텍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김영호 (73)농생물학	문성훈 (86)식품공학	신재익 (60)농화학		
(주)넥스캠	권숙환 학부모	김유용 (83)축산학	문지애 (77)식품공학	신젠타코리아(주)		
(주)생명이나루	권정혁 (60)농학	김유용, 윤원희	문대화 (71)식품공학	신한풍 (59)농학		
(주)서울신문사	권철 (59)축산학	김인식 (64)농학	바이오사이드테크	신현호 (79)원예학		
(주)숲에서	김경옥 (68)농공학	김장원 서울대직원	박관화 (62)농화학	신희순 (69)잠사학		
(주)신농	김관수 (82)농경제학	김정환 (75)농화학	박기주 (69)농업교육	실험누리과학관 (82)대학원		
(주)아테나	김광호 (68)식품공학	김중무 (59)농학	박낙희 (83)농업교육	심용섭 (70)농업교육		
(주)케이티엔에프	김국형 (83)농생물학	김진도 (81)농업교육	박수철 (82)산림자원	셀테크		
(주)하이스	김규옥 학부모	김진우 (2006)산림과학부	박시우 (65)농생물학	안동만 조정학 교수		
(주)엘씨에스	김근숙 농화학	김진의 (59)축산학	박원규 (60)농공학	안동환 (86)농경제학		
53학번 동기회	김기선 (74)원예학	김태수 (66)임학	박은우 (73)농생물학	안성규 (78)임학		
59학번 동기회(재미회원)	김동암 (52)축산학	김현중 (83)임산공학	박정현 (64)농업교육	안원영 (55)임학		
69학번 동기회	김동윤 (48)농경제학	김호탁 (58)농경제학	박중국 (57)농화학	양태진 (85)원예학		
69학번 여성동기회	김동태 (62)농경제학	김희화 (86)동물자원과학	박창서 (61)농경제학	양호석 (57)농화학		
70학번 동기회	김명중 (70)임산공학	나승일 (81)농산업교육	박창호 (58)임학	엄기덕 (46)농화학		
71학번 동기회	김무열 (64)농공학	노희명 (76)농화학	박필선 (90)산림자원학	에스엠에이엔지니어링(주)		
81학번 원예동문동기회	김민균 (82)농화학	농생대 기획실	박호근 (59)농학	에스위터(주)		
가나바이오텍(주)	김병동 (62)농학	농생대 동창회	반성환 (50)농경제학	연은실		
간접연구경비회계지원금	김봉영 에버랜드사장	농생대 수목원	배동걸	염동해 (74)조정학		
강미정 농가정학	김상근 농업교육	농생명과학연구정보센터	백남천 (81)농학	오기봉 (78)농화학		
강병철 (86) 원예학	김상돈 (44)축산학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백중현 (79)임산가공학	오평환장학금 적립금		
강석근	김석구 (55)임학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부경생 (60)농생물학	온경용 (79)원예학		
강신백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교직원	김성배 (85)농생물학	농학과 동기회	브이에프티	우리농장		
강예원 학부모	김성수 (63)농업교육	농협중앙회	서문원 (74)농학	우무일 (64)임학		
강창희 (66) 농경제학	김성일 (76)임학	농화학 동문회	서민영 서울대직원	우보명 (57)임학		
고 강석권, 고 최하자 유족	김수민 (2003)환경재료과학	도윤희 (61)농화학	서병률 (69)농공학	우석상 (83)임학		
고 이은웅 교수 유족 (72)농경제학	김영권 농학	동 문	서울신문사	원광엠에프디(주) (86)농화학		

기금출연(2000. 01. 01 ~ 2015. 03. 31)

원후식 (56)농생물학	이완주 (63)잠사학	정중훈 (77)농공학	㈜이지코스	호영하이텍
유상렬 (78)식품공학	이용창 父 (99)생물자원공학부	정주상 (77)임학	㈜장수로	홍상욱 (83)원예학
유상철 (64)축산학	이용환 (79)농생물학	정진구 (65)농공학	㈜지이오픈	홍인식 (79)원예학
유원예코사이언스	이우신 (75)임학	정진화	㈜지지에프바이오	홍종일 (80)축산학
유원예코사이언스㈜	이인모 (65)농경제학	정현석 (63)농화학	㈜추비로	홍종혁 농경제학 석사 홍준표 조부
유한킴벌리	이인복 지역시스템공학 교수	정희성 (60)임학	㈜투플러스코스팜	화인엔터프라
윤계섭 (53)임학	이장희	제10기 녹색지도자최고위과정	㈜프로첼코리아	환경지도자최고위과정
윤여창 (74)임학	이재갑	제11기 녹색지도자최고위과정	㈜하이스	황인규 (76)농생물학
윤용인 (57)농가정학	이재진 (65)농학	제연호 (86)천연섬유학	㈜한국에그로바이오	CALSP
윤원희 김유용교수부인	이전제 (70)임산가공학	조도현 서울대직원	㈜한성T&I	KBS한국방송
윤익건설	이정식 (69)원예학	조민성 父 (97)농경제학사회학부	㈜해남테크	MBC문화방송
윤해정 (90)임산공학	이정훈 父 (2000)식품생산과학부	조성인 (77)농공학	㈜현우그린	RNL생명과학㈜
윤희진 (62)축산학	이종영 (70)임산가공학	조재영 (39)농학	㈜IFC	녹색지도자최고위과정
이건호 (67)농경제학	이준호 (74)농생물학	조종수 (66)잠사학	㈜SK텔레콤	고려시스템
이경국 (78)	이중용 (77)농공학	㈜이관희 프로덕션	직업과정CEO 과정	㈜한성T&I
이광희 (75)농학	이철영 한백과학 대표	㈜고추와육종	진정우 학부모	우상규
이기훈 (91)천연섬유	이철우 (61)농경제학	㈜내추로바이오텍	차상석 연세대	한국방송공사
이내수 (58)농경제학	이춘만 (73)임학	㈜녹색식품연구소	창업지원센터	㈜고추와육종
이돈구 (65)임학	이충만 (2009)동물생명공학	㈜누보	채수군 (54)잠사학	이종윤(고이진욱 父)김덕연
이동근 (82)조경학	이태호 (74)농경제학	㈜밀투밸런스	채영암 (60)농학	㈜에이티랩
이동찬 (82)농공학	이필우 (53)임학	㈜바이오모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제노레버코리아
이두미 (66)농학	이한강 (69)임학	㈜베스트텍코리아	최고농업정책과정 14기	한국마사회
이득용 (52)농경제학	이현수 (60)농화학	㈜블루비에스	최고농업정책과정 15기	프로첼코리아
이명훈 (69)농경제학	이형주 (66)농화학	㈜블루반바이오먼트엔텍	최상호 (78)식품공학	㈜누보
이무하 (67)축산학	이홍 (70)농화학	㈜비르앤마이크로	최연홍 (56)잠사학	㈜베스트텍코리아
이미경 (74)농화학	이희석 (57)농생물학	㈜비비씨엔에프	최운재 (73)축산학	(주)서울신문사
이미순 (56)농학	이희재 (78)원예학	㈜삼우종합건축사무소	최인규 (80)임산공학	㈜한성T&I
이병근 (67)농경제학	일본동문회	㈜생명과학기술	최정우 父 (2000)생물자원공학부	㈜누보
이병목 (64)농생물학	임경순 (54)축산학	㈜센스메트릭스	최진용 (84)농공학	㈜두타연
이병일 (57)원예학	임승빈 조경학 교수	㈜숲에서	최학근(최윤희 학부모) (10)응용생명	㈜비비씨엔에프
이병창	임용재 (67)농경제학	㈜신택	최홍림 (71)농공학	㈜블루비에스
이삼희 (66)농화학	임용택 (54)농경제학	㈜싸이퍼인텔리전스	투플러스코스팜㈜	㈜엘씨에스바이오텍
이상기 (79)농화학	임정목 동물생명공학 교수	㈜씨에스텍	패션푸드㈜	오평환장학금 기본 적립
이상영 (65)잠사학	장우상 (63)잠사학	㈜아데나	프로첼코리아	㈜고추와육종
이상우 (89)임학	장진성 (78)임학	㈜에스씨아이	피타코이드㈜	배동걸
이상훈 (88)조경학	장창순 (53)농경제학	㈜에스씨에프	하중규 (75)축산학	창업지원센터
이석하 (78)농학	장태평	㈜에스이오	한국마사회	농식품경영유통최고위과정3기
이성우 지역정보 교수	장학균 학부모	㈜에이티랩	한국전파기지국㈜	유상렬
익명 (71)	장휴동 (59)농경제학	㈜에이피디	한상울 (72)농업교육	김경욱
이수정 (65)농가정학	재일동창생	㈜에코엘미디어트	한성T&I	김학진
이승구 (66)농화학	전창후 (83)원예학	㈜에프엔피	한재용 (80)축산학	㈜네이처그로
이승환 (80)농생물학	정구민 (84)축산학	㈜여러분의 천년초	한준호 (64)임학	(주)이피텍
이시혁 (80)농생물학	정민석 (59)임학	㈜오리엔탈드림	현의송 (61)잠사학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정윤환 (56)임학	㈜유원테크	현정오 (66)농생물학	
이윤규 (77)농학	정일영 (62)축산학	㈜이레텔	현진호 (88)천연섬유학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생대 발전기금 출연안내] 농생대 교육연구재단 전화 : 02)880-4510 농생대 홈페이지 : <http://cals.snu.ac.kr>

People 농생대 사람들

[동문동정]

- ▶ 윤대섭(농공학 49) 동문이 3월 20일 서울대 총동창회로부터 제17회 관악대상을 수상하였다.
- ▶ 홍승서(농화학 77) 동문이 3월 27일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 ▶ 이준원(농업교육 81) 동문이 3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으로 선임되었다.
- ▶ 박흥규(농업교육 79) 동문이 4월 1일 강원도농업기술원 원장으로 선임되었다.
- ▶ 채광석(농경제 84) 동문이 4월 22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전략부문 상근이사로 선임되었다.
- ▶ 이학교(축산학 81) 동문이 5월 15일 전북대학교 농생대 동물생명공학과 교수로 선임되었다.
- ▶ 이종호(농경제 92) 동문이 5월 27일 세종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선임되었다.
- ▶ 김동환(축산학 77) 동문이 6월 8일 농협중앙회 사외이사로 재선임되었다.

[교수동정]

- ▶ 농생명공학부 장판식 교수는 3월 26일 광동제약 본사에서 열린 제3회 비타민C 산화연구회 세미나에서, '유화능/항산화능/항균력을 동시에 갖는 비타민C 유도체 신규소재(erythorbyl laurate)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 ▶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이동근 교수가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 개최된 제35차 국제영양학학회(IAIA) 총회에서 "Topographic linkage for a sustainable forest", 'Cost-benefit analysis of forest ecosystem services'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 ▶ 농생명공학부 최윤재 교수가 5월 21일 전북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최된 제47차 축산식품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기능성 사료첨가제 개발을 통한 기능성 축산식품 생산 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였다.



- ▶ 농생명과학연구원 조종수/농생명공학부 최윤재 교수 연구팀은 회장 표적방출형 점막접착성 백신 전달체를 최초로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여 세계적 학술지인 Biomaterials(해당 분야 상위 2.6%)에 최근호(2015년 5월 15일 공개)를 통해 발표(논문 제목: Attuning hydroxypropyl methylcellulose phthalate to oral delivery vehicle for effective and selective delivery of protein vaccine in ileum)하였다.
- ▶ 농산업교육과 정철영 교수가 5월 22일 개최된 경남정보대 건학 5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에서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전문대학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151-921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홈페이지 <http://cals.snu.ac.kr>

※ 지역번호 (02)

학장실 T.880-4501~2 F.873-7709
교무행정실 T.880-4505~7 F.873-2009
학생행정실 T.880-4531/4508 F.873-5597
연구행정실 T.880-4910 F.873-7729
기획실 T.880-4510/4538 F.873-5579
사무행정실 T.880-4512~5 F.873-0263
입학진로정보실 T.880-4667 F.880-4668

식물생산과학부 T.880-4540
- 작물생명과학전공 T.880-4550 F.877-4550
- 원예생명과학전공 T.880-4578 F.873-2056
- 산업인력개발학전공 T.880-4830 F.873-2042

산림과학부 T.880-4750
- 산림환경과학전공 T.880-4777 F.873-3560
- 환경재료과학전공 T.880-4780 F.873-2318

농생명공학부 T.880-4901
+ 식품·동물생명공학부 T.880-4869
- 식품생명공학전공 T.880-4850 F.873-5095
- 동물생명공학전공 T.880-4800 F.873-2271
+ 응용생물학부 T.880-4640
- 응용생명과학전공 T.880-4650 F.873-3112
- 식물미생물학전공 T.880-4690 F.873-2317
- 곤충학전공 T.880-4700 F.873-2319
+ 바이오모듈레이션전공 T.880-4907 F.877-4906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T.880-4670
- 조경학전공 T.880-4870 F.873-5113
- 지역시스템공학전공 T.880-4580 F.873-2087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T.880-4590
-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T.880-4600 F.873-2049
- 바이오소재공학전공 T.880-4620 F.873-2285

농경제사회학부 T.880-4710
- 농업·자원경제학전공 T.880-4711 F.873-3565
- 지역정보전공 T.880-4740 F.873-5080

협동과정 농생명유전체학 T.880-4901 F.873-2039

협동과정 농림기상학 T.871-0211 F.871-0230

농장 T.(031)293-0310~2 F.(031)295-4216
수목원 T.(031)473-0071 F.(031)473-0072
학술팀 T.880-4526 F.873-2031
실험목장 T.(033)339-5901 F.(033)339-5909
농학도서관 T.880-4774~5 F.884-0182
교육연수원 T.880-4844 F.872-8995

농업공학실 T.880-4619
농생명과학정보원 T.880-4523 F.882-7670
식품공학 T.880-4824
농생명과학동기기관 T.880-4845 F.888-4847
식물병원 T.880-4697 F.880-4698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T.(031)293-0324 F.(031)294-8527
농업생명과학연구원 T.880-4910~4 F.873-7729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T.880-4920~1 F.873-5260
식물유전체융합연구소 T.880-4930 F.873-5410
곰팡이병원생물연구소 T.880-4950 F.873-4950
세균의사소통연구센터 T.880-4686 F.873-2317

식물안전성 및 독성연구센터
T.880-4919 F.883-4919
채소육종연구센터 T.880-4945 F.873-5410
농생명 및 식품산업 혁신 역량 강화사업단
T.880-4631 F.873-3565
농생명공학사업단 T.880-4901~2 F.873-2039
식물분자육종사업단 T.880-4978~9 F.875-4978
최고농업정책과정 T.880-4735 F.886-4898
농식품경영·유통최고과정 T.880-4735
국가농림기상센터 T.871-0234 F.871-0230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232-916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1447
홈페이지 <http://greenbio.snu.ac.kr/>
T.(033)339-5680 F.(033)339-5689

[동창회 소식]

▶ 2015년 제1차 상임위원회 개최



2015년 제1차 상임위원회 개최

이 참석하여 동창회 경과보고를 진행하고, 2015년 상록인 명예의 전당 헌정자 및 '자랑스러운 상록인 대상' 수상자를 확정하였다. 또한 이날 사임하는 서승진 감사(임학72)의 후임으로 정현석 동문(농화학63)이 선출되었다.

▶ 2015년 상록의날/ 정기총회 및 81학번 졸업30주년 기념행사



2015년 상록의날

5월 16일 우리 대학 201동 101호 대강당에서 25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상록의 날 정기총회 및

81학번 졸업 3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1부 정기총회는 류관희 수석부회장(농공 63)이 사회를 맡았고, 이현수 동창회장의 환영사 및 이학래 회장의 축사에 이어 조종수 감사(잠사 66)의 2014년 회계감사 결과 및 결산 보고 후 2015년 사업계획 심의·통과 절차가 있었다. 이어서 구자옥 포상위원장(농학 60)이 상록인 명예의 전당 헌정자로 최봉호 동문(농학 56)이, 자랑스러운 상록인 대상에는 정영선(농학 60), 김윤배(농공 61), 성진근(농경제 64), 이상무(농학 67) 동문이 선정되었음을 보고하였고, 동창회장과 우리 대학 학장의 시상식이 있었다. 또한 농협대학장에 취임한 남성우 동문(축산 69), 전북대 총장에 취임한 이남호 동문(임산공 78), 국립수목원장에 취임한 이우미 동문(임학 81)에게는 축하패가, 2015년 새해인사회 주관 64학번 대표 변득수 동문(농교육 64), 2014년 상록의날 행사 주관 80학번 대표 김영서 동문(임학 81)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마지막으로 81학번 동문을 대표하여 박석근 동문(농학 81)이 2천만 원을 이현수 회장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하며 1부 행사를 마쳤다. 이어진 2부 행사는 홍지향 동문(농공 81)의 사회로 81학번 졸업 30주년 기념행사로 치루어졌고, 박석근 행사준비위원장의 인사에 이어 각 학과 대표들이 은사님들께 기념 선물과 함께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이후 '자랑스러운 상록인 대상' 수상자 정영선 동문이 '삶과 조경'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이어진 경품 추첨 행사를 끝으로 이날 행사는 막을 내렸다. 경품 협찬에는 이현수 회장을 비롯한 여러 동문들이 힘을 주셨다.

★ 소식을 통해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거나 구독을 원하시면 농생대 기획실(T. 880-4538, jhw1234@snu.ac.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